



## 국제무역과 목재포장재 열처리 시스템

오늘날 국제무역의 확대발전은 매시간당 11억불에 달하는 상품이 전 세계에 걸쳐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운송하역의 기계화는 파렛트라고 하는 필수적인 물류기기가 유통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국제운송의 주 수단인 해상용 컨테이너 화물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날로 그 사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 화물의 운송하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목재파렛트, 수출용목재포장 등으로 목재가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재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로 각국의 포장폐기물 처리비용징수에 있어서도 탄소재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선진국일수록 그 선호도가 높다.

문제는 이러한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각국의 식물보호 차원에서 가공처리하여 식품위생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미가공 목재포장재 수입규제" 확산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통관보류, 반송, 강제소득 등) 일부 간접무역장벽으로서 악용될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한국에서 선적되는 대중국 수출화물용 목재포장재(파렛트, 수출포장, 받침목 등)에 대하여 열처리 후 식품위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일방적 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수출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다행히 (사)한국파렛트협회는 국립식물검역소와 2000년 7월부터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재 포장재 열처리규정 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2년 1월 19일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2-1호로 시행한 바 국내업체와 식물검역소는 중국측 요구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처리 검사증명업체 지정을 위한 신속한 열처리시설 제작, 현장검증 등 불철주야 노력한 바 3월 18일 현재 전국에 84개의 열처리 검사증명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수출화물용 목재포장재의 주 소재는 침엽수로서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풍부한 분포와 저

렴하고 조립 육성, 사용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각국의 환경 보호 차원의 미가공 목재포장재 규제는 바로 이 침엽수 특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각국 즉 유럽 15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에 대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8년 12월 18일 중국에 대하여 중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 일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산 침엽수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하고 있다.

이러한 목재의 병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열처리 방법(Heat Treatment), 가마건조법(Kiln-drying), 약물소독(MB훈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화 되어있으며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 열처리방법으로 목재심부 온도가 56℃에서 30분 이상 유지되어 그 가공기록을 근거로 위생증명을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특히 앞으로는 HT마크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제도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 ①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검사증명업체) ② 목재포장재 생산업체(파렛트 수출포장 제작업체) ③ 사용기업(수출기업) 모두가 정확한 처리, 제작, 사용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국가 식물보호기관의 증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엄격한 운영이 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한국의 열처리 제품에서 병해충이 검출된다면 더욱더 엄격한

국제적인 규제를 자초하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요청된다.

둘째, 2002년 3월 18일 전국 84개의 열처리 검사증명업체가 지정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나 100개 업체로 증가하리라고 본다. 일본은 우리보다 5배 이상의 시장에 비하여 전국에 48개 열처리 지정인증업체를 전국에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급격히 대량 지정된 국내 업체들은 효율성에서 크게 떨어져 열처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지 크게 걱정된다.

셋째, 열처리 시스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목재 습도의 관리이다. 목재는 습도 20%이하로 건조해야 곰팡이 등의 서식이 제거되어 재감염 등의 위험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속 고온으로 56℃ 30분 규정에 맞추어 열처리하여도 반드시 습도 20% 이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한국파렛트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열처리업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지난 3월 12일 “목재포장재 열처리 시설 검사증명업체 협의회” 발기총회를 갖고 각도지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이 협회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다. ☺